

김재영 소설의 디아스포라 표상

공종구(군산대)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글 | 3. 경계인의 분열증적 정체성: 코리안 디아스포라 표상 |
| 2. 차별과 배제의 희생양: 한국의 디아스포라 표상 | 4. 나오는 글 |

1. 들어가는 글

한국 사회는 오랜 세월 ‘단일 민족의 신화’와 ‘순혈주의 전통’을 소중한 민족 자산이자 자부로 여겨 왔다. 그러한 전통이나 신화는 최근 들어 서서히 해체의 징후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징후나 조짐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흐름을 주도한 요인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주 노동이나 이주 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에 들어온 디아스포라¹⁾들이다. ‘다른 선진국과 유사하게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필요에 의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이주자(디아스포라)의 유입 결과 2012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는 14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퍼센트를

1) 원래 이산 유대인을 가리키는 이 말은 현대에는 좀 더 폭넓게,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서경식/한승동, 『디아스포라의 눈』, 한겨레출판, 2012, 5면. 디아스포라의 개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8, 4-6면 참조.

차지하고 있다.²⁾ 한국을 이주 목적국으로 설정한 이주자의 유입 증가 추세는 앞으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결혼 시장의 성비 불균형 같은 인구 위기”³⁾가 강 건너 불을 보듯 명확하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양한 배경과 동기에 의해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소수자나 주변부적 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존재들 또한 한국사회 단일 민족의 신화나 순혈주의 전통에 균열과 파열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⁴⁾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2005년 현재 664만 명”⁵⁾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공간 이동 또한 시공의 경계가 극도로 압축되는 글로벌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이주 목적국으로 하여 한국에 들어오는 디아스포라들이건, 아니면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자 한국을 떠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건 그들의 존재는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성찰과 질문을 자극하고 촉발한다. “최근 민족, 국가, 인종이라는 확고한 경계가 약화되면서 새삼 문제시되고 있는 삶의 형태”⁶⁾인 디아스포라의 존재는 이질적인 타자와의 접촉과 조우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강박적인 주술이나 집단 무의식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민족주의나 국가(민)주의의 바깥을 사유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2000년 『내일을 여는 작가』 신인상으로 등단한 이후 한국의 소설 문단 지형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서사적 영토를 개척해나가고 있는 김재영의 소설은 주목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등단 이후 자신의 서사 영토를 확장해나가는 과정에서 발표한 『코끼리』(2005)와 『폭식』(2009)에는 이주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시선에 의한 디아스포라의 상실감이나 비애를 통해 민족이나 국가 바깥에 대한 사유나 성찰을 자극하고 견인하는 작품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김현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돌베개, 2014, 19-20면 참조.

3) 위의 책, 20면.

4) 윤인진, 앞의 책, 8면.

5)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2008, 69면.

6) 정은경, 『디아스포라 문학』, 이룸, 2007, 6면.

두 권의 작품집에 수록된 17편의 작품들 가운데 디아스포라의 상실감과 비애가 서사의 주요 동력으로 작동하는 작품은 모두 7편이다. 이들은 다시 이주 노동이나 이주 결혼을 통해 들어온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에 의한 디아스포라의 상실감이나 비애를 다룬 작품군들과 한국 사회를 떠나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개척하기 위해 들어간 지역만리 외국의 차별과 배제에 의한 디아스포라의 상실감과 비애를 다룬 작품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한국의 디아스포라 작품군’으로 명명하고 후자의 경우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품군’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7편의 디아스포라 작품군 계열에 속하는 작품들 가운데 한국의 디아스포라 작품군에 속하는 작품은 「코끼리」, 「아홉 개의 푸른 쏘냐」, 「꽃가마배」 세 편이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품군에 속하는 작품들은 「롱아일랜드의 꽃게잡이」, 「앵초」, 「폭식」, 「M역의 나비」 네 편이다.

이제까지 김재영의 소설에 대한 논의는 등단 시기나 활동 기간에 비해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기존의 논의들은 대부분 디아스포라나 소수자 또는 다문화주의를 축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다. 디아스포라나 소수자를 지배적인 해석 코드로 동원한 기존의 논의들은 이질적인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기제에 기초한 민족주의나 국민주의를 내면화한 한국 사회의 집단 무의식이나 왜곡된 욕망에 대한 사유나 성찰을 자극하는 김재영 소설의 의의를 조명하고 평가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글 또한 기존의 논의들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들은 대부분 한 가지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그것은 대부분의 기존 논의들이 분석 대상으로 소환하고 있는 작품이 거의 「코끼리」 한 편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의 문제의식을 자극하고 촉발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에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한 이 글은 ‘한국의 디아스포라 작품군’에 속하는 「코끼리」, 「아홉 개의 푸른 쏘냐」, 「꽃가마배」 세 편과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품군’에 속하는 「롱아일랜드의 꽃게잡이」, 「앵초」, 「폭식」, 「M역의 나비」 네 편 등 모두 7편의 작품

7) 대표적인 논의로는 송현호, 「〈코끼리에 나타난 이주 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42, 2009와 박산향, 「김재영의 『코끼리』에 나타난 흉내 내기와 이주민의 정체성」,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한어문교육』27, 2012를 들 수 있다.

을 집중적인 분석 대상으로 소환하고자 한다. 집중적인 분석 대상으로 소환한 7편의 작품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표상의 분석과 논의를 통해 민족과 국가에 대한 김재영의 문제의식을 탐색하고 천착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차별과 배제의 희생양: 한국의 디아스포라 표상

『코끼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김재영의 작품 지형에서도 그렇고 디아스포라를 소재로 한 한국의 소설 지형에서도 그렇다. “우리 작가들 가운데 가장 앞서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루어온”⁸⁾ 김재영의 디아스포라 소설들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한 작품이 바로 『코끼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한국의 디아스포라 표상이 어떻게 재현되는가 하는 문제는 『코끼리』 한 작품에만 국한될 수 없는 비중을 지닌다. 이 작품에 재현된 한국의 디아스포라 표상은 민족과 국가의 바깥을 사유하고 성찰하고자 하는 김재영의 문제의식이나 무의식의 원형이나 방향성을 암시하거나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끼리』를 비롯하여 『아홉 개의 푸른 쏘냐』, 『꽃가마배』 등 세 편의 소설에서 한국의 디아스포라들은 모두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희생양 표상으로 재현되고 있다. 네팔 출신의 이주 노동자인 아버지 어르준과 조선족 출신의 이주 노동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열 세 살의 어린 소년 아카스. ‘열 세 살 어린 나이에 너무 다양한 삶을 보아버려 머릿속이 히말라야처럼 굴곡이 꺾어버린’(11면) 아카스의 시선을 통해 『코끼리』의 서사 전면에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이다.

인젠가 명동에 다녀온 그가 입술을 비틀며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단일민족이라 외국인한테 거부감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불친절한 거라고? 웃기는 소리 마. 미국 사람 앞에서는 안 그래. 친절하다 못해 비굴할 정도지. 너도 얼굴만 좀 하얗다면 미국 사람처럼 보일 텐데.....”

8) 정호웅, 『절망과 고통의 현실, 연민의 마음』, 김재영, 『코끼리』, 실천문학사, 2009, 352면.

그 뒤로 나는 저녁마다 물에 탈색제 한 알을 풀어 세수했고 저녁이면 내가 얼마나 하얗졌나 보려고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내가 바라는 건 미국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었다. 그냥 한국 사람만큼만 하얗게, 아니 노랗게 되기를 바랐다. 여름 숲의 뱀처럼, 가을 낙엽 밑의 나방처럼 나에게도 보호색이 필요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비비충을 새로 산 남자애들의 첫 번째 표적이 되지 않고,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왕따가 되지 않고, 달리기를 할 때 뒤에서 밀치고 싶은 까만 방해물로 비치지 않도록,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탈색제를 썼다. (『코끼리』, 『코끼리』, 17-18면⁹⁾)

아카스의 고백적 진술을 통한 증언 의지를 통해 비판적 심문의 광장에 소환되는 대상은 순혈주의나 단일민족의 신화에 포장된 한국 민족주의의 외설적 이면에 잠복된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이다. “사람은 타자와 자기의 ‘불연속’을 알게 됨으로써 타자의 ‘잔여’로서 자기를 발견하는 법”¹⁰⁾이다. 한국 사람이라는 민족적 표지나 정체성의 성립은 따라서 한국 사람의 외부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타자의 설정을 통한 동화와 배제의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타자의 존재야말로 주체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치에서이다. 그리고 동서고금의 역사를 불문하고 이제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과 집단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좀 더 우월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차별이라는 방법을 구사”¹¹⁾해 왔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심리적 평정과 안정을 회복하거나 또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데서 오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배경으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권력관계에 기초한 개인적·집단적 편견과 배제의 기제이다.

피부색을 기준으로 한 인종적·민족적인 위계에서 까무잡잡한 피부색의 동남아 출신들은 아프리카의 흑인과 더불어 한국 사회의 최하층부를 형성한다.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도 그들은 당연히 소수자나 주변부적 타자의 위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중층적·복합적인 구조를 지닌 차별과 배제의

9) 앞으로 본문에서의 작품 인용은 인용 문면 다음에 인용 면수를 밝히는 방식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10) 정영혜/후지이 다케시, 『다미가요 제창』, 삼인, 2011, 37면.

11) 위의 책, 38면.

먹이 사슬에서 마지막 표적은 항상 그들에게 집중되기 마련이다. 탈색제를 풀어서라도 자신의 얼굴 피부를 하얗게 변색하고자 하는 아카스의 처절한 노력, 같은 노동자의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이주 노동자 세르게니에게 “너들도 자르면 피 나오고 누르면 똥 나오는 사람이다, 이거냐? 웃기는 소리들 마.”(26면)라는 인종주의적 편견을 노골적으로 발설하는 필용이 아저씨의 폭력, 그리고 아내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들른 아카스의 아버지를 백화점 입구에서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백화점의 횡포 등은 권력관계에 기초한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편견이나 차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흑인환자가 백인이 되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원인은 그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의 열등의식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그 사회는 이러한 콤플렉스를 영속화하고 특정 인종의 우월성을 주장함으로써 스스로를 공고하게 한다”¹²⁾는 파농의 통찰은 인종주의의 본질을 관통하는 적실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모든 사람은 혼혈이다”¹³⁾라는 명제와도 같이, “인종이란 객관적 근거를 가진 자연집단이 아닌, 인공적으로 구분된 통계적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¹⁴⁾ 이와 같이 생물학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따라서 개념적으로 무의미한 인종에 객관적인 실체를 부여하여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 근거, 또는 타인종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근거로 동원하려고 하는 행위는 분명한 폭력이다.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은 “날 것의 삶” 속에 던져진다. 특정한 삶의 방식에서 정치적 장인 폴리스에서 추방되고 배제되는 그들에게 남는 것은 동물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것이다.”¹⁵⁾ ‘십여 년 전까지 돼지축사로 쓰였다는, 낡은 베니어판 문 다섯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건물’(9면)에 거주하면서 ‘노끈에 꿰인 가자미처럼 취급’(13면)당하는 상황이야말로 동물적인 생존 그 자체만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절체절명의 명제가 되어버릴 정도로 막다른 골목이나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절박한 처지를 극명하게 압축하는 설정이라

12) 이경원, 『검은 역사 하얀 이론』, 한길사, 2011, 215면.

13) 정영혜, 앞의 책, 37면.

14) 고자카이 도시아키/방광석, 『민족은 없다』, 뿌리와 이파리, 2003, 22면.

15) 이진경, 『외부, 사유의 정치학』, 그린비, 2009, 208면.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들에게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범죄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찍 소리와 함께 노랫소리가 푹 끊긴다. 검은 물체는 쓰러진 노랭이 앞가슴에서 심장을 뜯어내듯 지갑을 뺏는다. 희미한 달빛 아래 입을 벌리고 웃는 얼굴이 얼핏 보인다. 비재 아저씨다. 나는 눈을 질끈 감는다. 눈꺼풀 안쪽으로 은색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난다. 구덩이에 발이 빠진 코끼리는 큰 귀를 펼럭이며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발버둥 칠수록 뒷다리는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간다. 구덩이는 삼시간에 시커먼 늪으로 변하더니 워든 집어삼킬 태세로 거세게 휘돌아간다. 아, ‘외’다. 현기증이 일도록 빠르게 소용돌이치는 ‘외.....’ 코끼리는 맥없이 빨려 들어간다. 미처 비명을 지르지 못하고 눈을 부릅뜬 채, 눈앞이 온통 까맣다.(『코끼리』, 『코끼리』, 37-38면)

“김재영은 상징을 버리로 하는 소설 구성방식을 좋아하는 듯하다”¹⁶⁾는 지적처럼,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코끼리’와 ‘외’는 생존의 막다른 벼랑 끝에 몰려 충동적인 범죄자의 처지로 전락한 한국 디아스포라들의 절박한 처지를 상징적으로 압축하고 있다. 힌두교 신화에서 코끼리는 원래 ‘신들의 왕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에서 격이 낮아져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의 신분’(20면)으로 전락한 동물의 표상이며, ‘외’는 미얀마 말로 소용돌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름보다 높은 네팔의 히말라야에서 탄생해서 천상계의 신성한 별과 달을 연구하던 천문학도’에서 ‘한국의 후미진 공장 지대에서 하루에 수백 개씩의 전구를 만드는 공장 노동자’의 처지로 전락한 아버지 어르준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심장 수술 비용을 파키스탄 출신의 이주 노동자인 알리에게 절도당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로 돌변해서 인도 출신의 동료 이주 노동자인 나담 몰라의 돈을 강탈하는 강도의 신분으로 전락한 비재 아저씨의 참담한 처지를 코끼리가 외에 빠져 헤어날지 못하는 상황과 동일시하는 설정을 통해 김재영이 전달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비재 아저씨를 ‘선량하고 순박한 성품의 소유자에서’ 범죄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하는 서사 설정을 통해 김재영은 인종적·국가적 위계에 기초한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16) 정호웅, 앞의 글, 347면.

한국의 현실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적대적이고 폭력적인가를 성찰하고 심문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혈연적 공동체가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¹⁷⁾인 민족과 국가의 바깥을 사유하고 상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의해 막다른 골목이나 벼랑 끝에 몰린 이주 노동자나 이주 결혼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통해 민족과 국가의 바깥을 사유하고 성찰해보고자 하는 서사의 설정이나 문법은 「아홉 개의 푸른 쏘냐」와 「꽃가마배」에서도 반복적으로 변주되고 있다. 먼저 러시아 출신의 이주 여성인 쏘냐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서 민족과 국가 바깥을 사유하고 상상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아홉 개의 푸른 쏘냐」는 「코끼리」의 행랑채에서 드난살이를 하던 마리아의 서사가 분가하여 독자적인 살림을 차린 작품이다. 부분적인 서사의 변주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사의 설정이나 문제의식에서는 「코끼리」의 궤적을 거의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따라서 ‘러시아 민속무용단원’에서 ‘한국 이태원 클럽의 무희’로 전락한 후 한국인 브로커의 폭력과 매춘 및 마약에 시달리다 결국은 살인 미수 혐의의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을 거듭하는 쏘냐의 인생유전이 서사의 중핵을 형성하는 서사 설정을 통해서 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문제의식 또한 「코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꽃가마배」는 이주 결혼 여성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서 민족과 국가의 바깥을 사유하고 상상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수로왕과 허황옥의 결혼 설화가 씨줄로, 그리고 태국 출신의 이주 결혼 여성인 능르타이와 교통 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지닌 수경 아버지와의 결혼 서사가 날줄로 교직하는 교차 서술 방식을 동원하고 있는 이 작품을 통해 김재영은 민족적·인종적 위계에 기초한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가 이주 결혼 여성들에게 얼마나 적대적이고 폭력적인가를 심문하고 있다. 더불어 “타자에 대한 공감은 국제결혼에서 가족 구성을 완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문화적 능력”¹⁸⁾임을 암시하고 있다. 사업 실패로 파산한 아버지와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어머니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위기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을 떠

17) 권혁범, 『민족주의는 죄악인가』, 생각의 나무, 2009, 13면.

18) 김현미, 앞의 책, 55면.

나 이주 결혼 여성으로 한국에 온 능 르타이에게 한국의 현실은 관대하지가 않다. 그 중에서도 능 르타이를, 교통사고로 죽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점령한 약탈자로, 그리고 한국의 과출부 비용보다도 더 적게 드는 교환가치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수경과 수경 고모의 일상적인 차별과 모욕은 능 르타이의 처지를 ‘죄면 죽고 퍼면 사는 손아귀에 든 병아리’(30면)로 생각하게 할 정도로 폭력적이다.

나 이집 식구야. 나 팔려온 거 아니고. 시집온 거 맞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당신들 다 미쳤어. 나 길거리에서 고향사람 만났어. 그게 죄야? 그거 우리나라에선 죄 아니. 당신들 나라 이상해. 여자가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고모와 나는 여자의 사슬에 놀라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는 영원히 입을 다물었다. (『꽃가마배』, 『폭식』, 29면)

수경과 수경 고모의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으로 인한 축적된 분노를 폭발한 능 르타이는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던 남편의 죽음 이후 수경이의 이복 동생인 수동이를 고향의 가족들에게 의탁한 후 취업한 피혁 공장의 화재로 인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능 르타이의 비극적인 인생유전을 통해 이 작품 또한 인종적·민족적 위계에서 약자나 소수자인 한국의 디아스포라에게 한국의 현실이 얼마나 적대적이고 폭력적인가를 증언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끊임없이 수로왕과 허황옥의 결혼 설화를 소환하거나 능 르타이의 사후 자신의 이복 동생인 수동이가 있는 태국을 방문하는 수경이의 여로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다문화 현상이 그 기원은 아주 오래 전에 형성된 것일 수도, 따라서 한국사회의 오랜 전통인 단일 민족의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이자 이데올로기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코끼리』를 비롯한 김재영의 한국의 디아스포라 소설들은 민족과 국가의 바깥을 사유하고 상상하고자 한 문제의식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해서 그런지 1920년대 카프의 문학이나 1980년대 노동소설이 공유하고 있는 공식주의나 도식성의 문제 및 한계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아 보인다. 실제로 이 세 작품들에서 한국 사회와 한국의 디아스포라의 관계는 단순도식이나 단선적 재단

의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보일 정도로 일방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더욱이 주체의 의지를 배반하는 ‘외’라는 상징이 극명하게 압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주 노동자들을 전락과 과멸로 이끄는 한국 사회의 상황은 입구만 있고 출구는 봉쇄된 일방 회로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작품이 “외국인 노동자를 자본제의 ‘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나 “가련한 희생자”의 표상으로만 재현하여 “가련한 희생자 이미지에 갇힌 이주 노동자의 반쪽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며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든다”¹⁹⁾는 지적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더불어 “이주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에게서 지고한 인간적 가치의 아름다움만을 보려는 문학적 시도는 이방인을 무조건 악/병균으로 간주하는 적대적 태도만큼이나 위험하다”²⁰⁾는 통찰 또한 이주 노동자들과 한국사회의 관계를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 제시하는 김재영의 소설에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 진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에 빠진 코끼리’와 ‘이주 노동자’ 사이의 유비적 관계 설정, 쏘냐에게 비대칭적인 환대의 윤리를 실천하는 그의 헌신, 능 르타이의 처참한 죽음 이후 자신의 이복동생인 수동이를 찾아나서는 여로에서 보여주는 수경이의 회한과 자책 등을 통해 민족과 국가 바깥에 대한 사유와 상상을 자극하고 촉발하는 김재영의 문제의식은 갈수록 민족과 국가의 경계가 해체의 징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최근의 상황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보인다. 더욱이 민족과 국가의 바깥을 사유하고 상상하고자 하는 김재영의 문제의식은 포스트 국가주의 담론의 담론 표지나 정체성으로 기능하는 ‘탈국가’나 ‘탈민족’이 아니라 “타자를 대상화하지 않을 때에만 발생하는, 타자를 동정과 연민, 배제와 차별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을 때에만 발생하는 윤리”²¹⁾와 “타자와 주체를 가르는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에만 가능한 환대”²²⁾를 지향하고 추구한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하거나 지나치기 어려운 소설적 성취라고 할 수 있다.

19) 김남혁, 『제국기계 앞에서 눈감는 소설』, 『작가세계』84, 2010.3, 296-297면.

20) 고봉준, 『추방과 탈주: 타자·마이네리티·디아스포라』, 『작가와 비평』6, 2007, 38면.

21) 위의 글, 28면.

22) 위의 글, 29면.

3. 경계인의 분열증적 정체성: 코리안 디아스포라 표상

「롱아일랜드의 꽃게잡이」를 비롯한 코리안 디아스포라 계열의 작품들과 「코끼리」를 비롯한 한국의 디아스포라 계열의 작품들은 서사의 외피 층위에서만 보면, 기하학적인 대칭 구조를 형성할 정도로 상호 대척적이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한국의 디아스포라 계열의 작품들에서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주체로 등장하던 한국인들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계열의 작품들에 와서는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타자화되어 등장한다는 점이다. 「롱아일랜드의 꽃게잡이」를 비롯한 세 편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계열의 작품들에서 서사의 주체나 초점인물로 기능하는 한국인들은 이역만리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경계인의 분열증적 정체성으로 인한 고뇌와 갈등을 반추하는 인물들로 재현된다. 이러한 서사 설정을 통해 김재영은 민족과 국가의 바깥을 사유하고 상상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거나 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들은 한국의 디아스포라 계열의 작품들과 서사의 외형만 다를 뿐 그 본질에서는 서로를 되비치는 반사경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롱아일랜드의 꽃게잡이」는 「코끼리」의 카운터파트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계열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한 이 작품에 재현된 코리안 디아스포라 표상은 근대 국민국가의 바깥을 사유하고 성찰하고자 하는 김재영의 문제의식이나 무의식의 원형이나 방향성을 암시하거나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경의 상상력을 통하여 근대 국민국가의 바깥을 사유하고 상상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초점인물이나 서술자로 기능하는 인물은 ‘수’와 ‘싸브리나’이다. 미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은 모두 오리엔탈리즘의 차별적 시선에 기초한 미국 주류 사회의 편견과 폭력에 의한 적응 장애와 정체성의 혼란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주류 사회에 완전히, 그리고 안전하게 편입하거나 진입하지 못하는 이질적인 타자와 소수자로서의 소외된 삶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이 두 사람은 “전지구적 힘들의 유행으로서 화형식에 바쳐질 안성맞춤의 제물”²³⁾이자 “잉여로 인한 괴로움이 거

23) 지그문트 바우만/정일준, 『쓰레기가 되는 삶들: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새물결, 2008, 124면.

냥할 수 있는 분명히 드러나 있고 움직이지 않는 표적”²⁴⁾이다.

하지만 십년 만에 다시 일하러 나선 지금의 처지는 예전만 못하다. 브루클린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그녀는 노모에 아이마저 딸린, 별볼일없는 서른일곱 이혼녀일 뿐이다. “나한테 백인 아내가 필요해.” 아일랜드계 전남편은 결혼 생활 십년 만에 그 한마디만 남기고 떠나버렸다. (『롱아일랜드의 꽃게잡이』, 『폭식』, 127면)

유독 코가 큰 여자는 싸브리나 또래의 백인이었는데, 갑자기 싸브리나에게 “너 영어로 된 신문도 읽을 줄 알아? 그것도 정치면?” 하며 놀람다는 듯 말했다. 싸브리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여자가 “너 정치는 알아 뭐 하게?”라며 입술을 비틀며 실소했다. 순간 화가 난 싸브리나가 “뭐 하게? 야, 나도 너랑 똑같이 미국 고등학교에서 공부했어. 그리고 나도 시민권자야!”라고 소리쳤다. (『롱아일랜드의 꽃게잡이』, 『폭식』, 128면)

“민족은 원초적으로 주어진 자연적인 집단이 아니고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문화적으로 구성”²⁵⁾된, 따라서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²⁶⁾라는 앤더슨의 주장처럼, 민족의 관념을 구성하는 토대나 근거는 아주 허약하거나 느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중적 징병제나 공교육, 공통의 가치나 상징, 신화나 의식을 통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을 ‘국민’으로 사회화”²⁷⁾해가는 과정을 통해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관념을 공유하거나 내면화하게 되면 민족은 엄청난 파괴력과 결속력을 지니게 된다. 민족은 “근대가 강제하는 변화와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야만 하는 개인들, 단절되어 있어 대부분 방향 감각을 상실한 수많은 개인들에게, 신뢰할 만한 자기와 자기가 귀속할 공동체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²⁸⁾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영혼이며 정신적인 원리이며, 한 민족의 존재는 매일매일의

24) 위의 책, 125면.

25) 베네딕트 앤더슨/윤형숙,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사회비평사, 1996, 9-10면.

26) 위의 책, 21면.

27) 강상중, 임성모, 『내셔널리즘』, 이산, 2004, 38면.

28) 위의 책, 39면.

국민투표로서, 따라서 민족은 이미 치러진 희생과 여전히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희생의 욕구에 의해 구성된 거대한 결속으로 동의, 함께 공동의 삶을 계속하기를 명백하게 표명하는 욕구로 요약”²⁹⁾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 서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개인의 정체성을 국민문화나 귀속, 공동체나 역사라는 하나의 천조각으로 단단히 봉해 버리는 집합적 인격의식”³⁰⁾의 상징적 매개로 기능하는 민족에 기초한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정당화 기제로 동원된다. 미국 주류사회에서 중요한 상징권력으로 기능하는 인종적·민족적 위계에 의해 싸브리나가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은 “‘세속적 종교’로서 사람들을 통합시키고, 또 많은 경우 광기의 늪”³¹⁾으로 치닫게 한 민족주의의 어두운 얼굴을 선명하게 증거한다.

열한살 때 가족과 함께 이민을 온 싸브리나는 정규 고등학교 학력과 미국 시민권을 소유한 어엿한 한사람의 미국 국민이다. 하지만 미국의 주류사회 백인들에게 그러한 사실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중요한 사실은 오직 한 가지. 싸브리나가 한국에서 이주해 온 유색인이라는 사실뿐이다. 중층적인 인종적·민족적 위계를 축으로 한 미국 사회의 정체성의 정치에서 히스패닉이나 흑인과 더불어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은 ‘미국 사회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사회 내부로부터 추방된 존재인 호모 사케르’³²⁾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 어엿한 미국 시민권을 소유한 미국 국민의 한사람이면서도 미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따라서 “호모 사케르가 존재하는 위상학적 자리인 내부와 외부가 구별불가능한 지대”³³⁾에 존재하는 싸브리나 또한 중층적인 인종적·민족적 위계를 축으로 한 정체성의 정치가 지배하는 권력관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싸브리나 또한 일제 강점기에 “조선은 일본이라는 국민적 정체성의 자기 이미지를 비추는 부정적인 거울로서 호출되어 자신의 열등한 오리엔탈적 성격을 투사해야 할 장소”³⁴⁾가 된 바 있었던 역사적인 사례

29) 에르네스트 르낭/신행선, 『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2, 80-81면.

30) 강상중, 앞의 책, 38면.

31) 강상중, 앞의 책, 27면.

32) 이진경, 『외부, 사유의 정치학』, 그린비, 2009, 207면. 호모 사케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조르조 아감벤/박진우,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155-232면 참조.

33) 이진경, 앞의 책, 207면.

가 예증하는 것처럼, 다른 유색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위의 갑작스러운 동요와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한 우려의 눈길을 돌리기 위한 편리한 대안적 초점이자 그러한 우려가 초래할 수밖에 없는 (백인들의) 근심과 분노를 발산할 비교적 안전한 출구”³⁵⁾나 표적이 될 밖에 없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싸브리나가 아일랜드계 전 남편의, ‘나한텐 백인 아내가 필요해’라는, 폭력적인 선언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것도, 내일 아트를 찾아온 미국 손님의, ‘너 영어로 된 신문도 읽을 줄 알아? 그것도 정치면을?’..... “너 정치는 알아 뭐 하게?”라는, 인격 살인에 가까운 언어 폭력에 일방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오직 하나. 그녀가 미국 사회의 인종적·민족적 위계에서 주변부적 타자의 지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유색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인종적 편견과 차별의 폭력에 노골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싸브리나가 경험하는 비애와 소외를 통해서 김재영은 국민주권, 자유, 평등, 박애 등의 가치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정체성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허구이자 신화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근대 국민국가는 국가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한 국가 내에서도 ‘항상 지배와 종속, 착취와 피착취, 차별과 피차별이라는 중심과 주변의 구조가 존재하는 네트워크 속에 위치’³⁶⁾ 지워져 있다는 것이다.

싸브리나와 더불어, 그리고 싸브리나의 서사와 갈마드는 구조적 짝패를 이루면서 근대 국민국가의 바깥을 상상하고 사유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초점인물로 기능하는 인물은 ‘수’이다. 수를 초점인물로 하는 서사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바깥에 대한 상상과 모색을 매개하는 통로는, 종교와 문화 및 영토 등과 더불어 민족의 구성이나 본질에서 핵심 요소로 소환되는 ‘언어’의 문제이다. 그 문제와 관련하여, ‘말을 잃으면 넋을 잃는 것과 같다’(144면)는 명제를 반복하면서 모국어의 순수한 기원 및 혈통에 집착하는 언어 민족주의의 지향을 실천하는 수의 아버지를 중학교 국어교사로 봉직하던 교단에서 감옥으로 추방하는 설정은 주목을 요한다. 수의 아버지의 추방은 언어 민족주의에 대한 상징적 처벌로 이러한 설정을 통해 김재영은 단일한 언어적

34) 강상중, 앞의 책, 41면.

35) 지그문트 바우만, 앞의 책, 108면.

36) 니시카와 나가오/윤대석,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2002, 291면 참조.

정체성을 전제하는 근대 국민국가 바깥에 대한 상상과 사유를 모색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에서 수의 딸을, 한 민족의 경계를 구획하고 분절하는 언어나 문화에 대한 검열이나 강박에 포박된 수나 수의 아버지와는 달리, 그 경계를 해체하거나 월경하는 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인물로, 그리고 아버지의 언어 민족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수를 ‘영미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을 중개하는 에이전트들과 사귀는 임무를 띠고 뉴욕’(122면)에 파견하여 새로운 언어·문화적 환경에서 적응 장애를 경험하게 하는 설정 또한 그러한 문제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더욱이, ‘광주에서 살다가 뜻하지 않게 시민군’으로 활동하다가 밀항선을 타고 건너간 미국에서 의문사를 당한 훈이 삼촌을 매개로 연결된 싸브리나와 수의 룡아일랜드에서의 상봉 약속을 어긋나게 하는 설정은 그러한 해석의 설득력에 결정적이면서도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다.

수는 어린시절의 한 장면에 발목이 잡혀 한동안 과거를 추억했다. 된장을 넣어 삶은 짬짬한 게는 처음 먹어보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맛있었다. 하긴 서해안 해수욕장으로 가족이 함께 피서간 것 자체가 처음이었다. (『룡아일랜드의 꽃게잡이』, 『폭식』, 130면)

삼촌은 편지에 늘 이렇게 쓰곤 했다. ‘.....주말에 룡아일랜드에 다녀왔단다. 룡아일랜드.....무척 아름다운 곳이지. 그곳에 가면 두고 온 서해바다. 비릿한 고향냄새를 맡을 수 있어. 나와 순이, 그리고 순이 아버지는 가끔 낚시대를 들고 그곳으로 갔단다.....’(『룡아일랜드의 꽃게잡이』, 『폭식』, 136면)

“여보세요. 수? 어디예요?”

아무 대답이 없다. 전화기 속에서 웅성대는 소음이 난다. 사방에서 자동차들이 급정거 하는 소리. 경적 소리가 들린다. 이어 싸이렌 소리.....

“괜찮아요? 수, 대답해요.”

어수선하면서도 나직함 소음이 들리던 전화기 속에서 갑자기 비명이 솟구친다. 크고 거대한 혼돈의 굉음이 귀를 찢는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룡아일랜드의 꽃게잡이』, 『폭식』, 153면)

수와 싸브리나의 연결고리인 훈이 삼촌이 시신으로 발견된 장소이자 유학생 환송 파티에서 가까워진 두 사람이 기차 여행지로 약속한 장소인 롱아일랜드는 근대 국민국가의 바깥을 상상하고 사유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상징적 함의를 지닌다. ‘롱아일랜드.....무척 아름다운 곳이지. 그곳에 가면 두고 온 서해바다. 비릿한 고향 냄새를 맡을 수 있어’라는 훈이 삼촌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서해안을 강력하게 환기하는 롱아일랜드는 근대 국민국가의 대리 표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약소 당일 뉴욕의 도심 한가운데에서 수가 흑인 청년과의 충돌로 인해 전화기를 놓치는 바람에 싸브리나와 약속한 롱아일랜드로의 기차 여행을 무산시키는 설정.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언어의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따라서 언어의 혼종성과 다성성이 지배하는 뉴욕의 도심 한가운데의 횡단보도에서 우연한 충돌 사고로 인해 수가 전화기를 놓쳐 싸브리나와의 통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설정 등이 모두 근대 국민국가 바깥을 상상하고 사유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의 반영임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네 사람의 초점인물을 갈마들게 하는 입체적인 서술전략을 동원하는 「앵초」 또한 근대 국민국가 바깥을 상상하고 사유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집약하는 인물은 하운이다. 9·11 테러 당시 한국 물류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순직한 민욱의 부인인 하운을 통해서 제시되는 문제의식의 통로는 두 가지 모티프이다. 하나는 남편 민욱의 죽음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아들 보람과의 갈등이다.

‘죽음마저 국경이 갈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귀천이 나뉘는 현실에 마음이 울적하다’(54면)는 하운의 하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종적·민족적 위계가 중요한 상징권력으로 작동하는 미국사회에서 그 자체만으로 존엄한 가치를 지닌 유일무이의 생명마저도 차별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일상의 시간과 질서를 완전한 단절과 정지의 공백으로 접수해버린 9.11 테러로 인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희생자라는 사실에서는 여타의 미국 국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민욱이 국가적 차원의 애도를 받는 미국인 희생자들과는 달리 망각에 가까울 정도로 외면당한다는 것도 인종적·민족적 위계를 축으로 한 차별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적에 따라 죽음마저 차별하는 설정을 통해 김재영은 “당연히 배제를 수반한 정의를 필요로 하는 국민화 프로젝트

트”³⁷⁾에 기초한 근대 국민국가의 폭력성을 성찰하고 심문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민족의 죽음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를 통해서 근대 국민국가의 폭력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면 아들 보람과의 갈등을 통해서도 근대 국민국가 바깥에 대한 상상과 사유를 모색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하운은 자민족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다른 국민이나 민족과의 공통성보다 차이를 강조하는 배타적인 성격을 내장”하면서 “국경을 안쪽에서 만들어 내거나 지지하는 강력한 국가이데올로기”³⁸⁾로 기능해 온 모국어나 전통 등과 같은 문화적 정체성을 고수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지향을 대변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 반대의 진영에 하운의 민족주의적 지향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길항하는 아들 보람의 탈민족주의적 지향이 대립하고 있다. 두 모자 사이에 형성된 정체성의 정치에서 혼으로 등장하는 남편 민욱과 민욱의 절친한 친구이자 하운의 대학 동창이면서 현재는 세계 시민 운동가로 활동하는 우창은 모두 보람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김재영은 “문화적으로 동질적이고 문화적으로 배타적인”³⁹⁾인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를 해체하는 한편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정치 공동체를 모색하고자 하는 탈민족주의적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월경을 상상력을 통하여 근대 국민국가 바깥을 상상하고 사유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폭식」이나 「M역의 나비」 등의 작품에서도 반복적인 변주를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화공플랜트 수주 세계 5대 업체의 하나인 맨해튼 스위치사의 수주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구촌을 이웃처럼 자유롭게 넘나드는 민팀장의, ‘나는 누구인가. 민지환인가 토마스 민인가. 나는 어디에 소속된 자일까. 한국인가 미국인가,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다’(188면)라는 정체성의 혼란과 분열을 반추하는 「폭식」이나 미란의 비극적인 생애를 통하여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비애를 반영하는 「M역의 나비」에서의 문제의식은 「롱아일랜드의 꽃게잡이」나 「앵초」에 비해서는 부분적인 모티프 차원에 그치고 있다.

37) 우에노 치즈코/이선이,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2000, 18면.

38) 니시카와 나가오/윤해동·방기현, 『국민을 그만두는 방법』, 역사비평사, 2010, 141면.

39) 위의 책, 216면.

4. 나오는 글

김재영의 소설들 가운데는 이주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시선에 의한 디아스포라의 상실감이나 비애를 통해 민족이나 국가 바깥에 대한 사유나 성찰을 자극하고 견인하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이 작품들을 두 가지 유형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이주 노동이나 결혼을 통해 들어온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에 의한 디아스포라의 상실감이나 비애를 다룬 ‘한국의 디아스포라 작품군’이었다.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를 떠나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개척하기 위해 들어간 이역만리 외국의 차별과 배제에 의한 디아스포라의 상실감과 비애를 다룬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품군’이었다. 김재영의 소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의 디아스포라 작품군을, 그것도 「코끼리」 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한 논의를 일반화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글의 문제의식을 자극하고 촉발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한 이 글은 ‘한국의 디아스포라 작품군’에 속하는 「코끼리」, 「아홉 개의 푸른 쏘냐」, 「꽃가마배」 세 편과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품군’에 속하는 「롱아일랜드의 꽃게잡이」, 「앵초」, 「폭식」, 「M역의 나비」 네 편 등 모두 7편의 작품을 집중적인 분석 대상으로 소환하였다. 집중적인 분석 대상으로 소환한 7편의 작품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표상의 분석과 논의를 통해 민족과 국가에 대한 김재영의 문제의식을 탐색하고 천착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다. 논의를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코끼리」를 비롯하여 「아홉 개의 푸른 쏘냐」, 「꽃가마배」 등 세 편의 소설에서 한국의 디아스포라들은 모두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희생양 표상으로 재현되고 있다. 「코끼리」를 비롯한 김재영의 한국의 디아스포라 소설들은 민족과 국가의 바깥을 사유하고 상상하고자 한 문제의식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해서 공식주의나 도식성의 문제 및 한계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국가 바깥에 대한 사유와 상상을 자극하고 촉발하는 김재영의 문제의식은 갈수록 민족과 국가의 경계가 해체의 징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최근의 상황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보인다.

「롱아일랜드의 꽃게잡이」를 비롯한 코리안 디아스포라 계열의 작품들에서 서사 주체로 기능하는 한국인들은 한국의 디아스포라 소설들에서와는 정반대

로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타자화되어 등장한다. 이 작품들을 비롯한 『앵초』, 『폭식』, 『M역의 나비』 등의 작품에서 한국인들은 이역만리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경계인의 분열증적 정체성으로 인한 고뇌와 갈등을 반추한다. 이러한 서사 설정을 통해 김재영은 민족과 국가의 바깥을 사유하고 상상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거나 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사의 외피에서 기하학적인 대칭 구조를 형성할 정도로 상호 대척적인 두 계열의 작품들은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를 해체하는 한편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정치 공동체를 모색하고자 하는 탈민족주의적 지향을 반영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의 측면에서는 서로를 되비치는 반사경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김재영, 『코끼리』, 실천문학사, 2009.

김재영, 『폭식』, 창비, 2009.

2. 논저

강상중/임성모, 『내셔널리즘』, 이산, 2004.

고봉준, 「추방과 탈주: 타자·마이너리티·디아스포라」, 『작가와 비평』6, 2007.

고자카이 도시아키/방광석, 『민족은 없다』, 뿌리와 이파리, 2003.

권혁범, 『민족주의는 죄악인가』, 생각의 나무, 2009.

김남혁, 「제국기계 앞에서 눈감는 소설」, 『작가세계』84, 2010.

김현미,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돌베개, 2014.

니시카와 나가오/윤대석,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2002.

니시카와 나가오/윤해동·방기현, 『국민을 그만두는 방법』, 역사비평사, 2010.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2008.

박산향, 「김재영의 코끼리에 나타난 흉내 내기와 이주민의 정체성」, 『한어 문교육』27,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2.

베네딕트 앤더슨/윤형숙,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사회비평사, 1996.

서경식/한승동, 『디아스포라의 눈』, 한겨레출판, 2012.

송현호, 「코끼리에 나타난 이주 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현대소설연구』4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에르네스트 르낭/신행선, 『민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2.

우에노 치즈코/이선이,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2000.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8.

이정원, 『검은 역사 하얀 이론』, 한길사, 2011.

이진경, 『외부, 사유의 정치학』, 그린비, 2009.

정은경, 『디아스포라 문학』, 이룸, 2007.

정영혜/후지이 다케시, 『다미가요 제창』, 삼인, 2011.

조르조 아감벤/박진우,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지그문트 바우만/정일준, 『쓰레기가 되는 삶들: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새물결, 2008.

【국문초록】

이 글은 김재영 소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표상의 분석과 논의를 통해 민족과 국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탐색하고 천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김재영의 작품들을 두 가지 유형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이주 노동이나 결혼을 통해 들어온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에 의한 디아스포라의 상실감이나 비애를 다룬 ‘한국의 디아스포라 작품군’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개척하기 위해 들어간 이역만리 외국의 차별과 배제에 의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상실감과 비애를 다룬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품군’이다. 「코끼리」를 비롯하여 「아홉 개의 푸른 쏘나」, 「꽃가마배」 등 ‘한국의 디아스포라 계열의 소설’에서 한국의 디아스포라들은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희생양 표상으로 재현되고 있다. 「롱아일랜드의 꽃게잡이」를 비롯한 「앵초」, 「폭식」, 「M역의 나비」 등 ‘코리안 디아스포라 계열의 소설’에서 서사 주체로 기능하는 한국인들은 한국의 디아스포라 소설들에서와는 정반대로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타자화되어 등장한다.

서사의 외피에서 두 계열의 작품들은 기하학적인 대칭 구조를 형성할 정도로 상호 대척적이다. 하지만,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를 해체하는 한편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정치 공동체를 모색하고자 하는 탈민족주의적 지향을 반영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의 측면에서는 서로를 되비치는 반사경으로 기능한다. 민족과 국가 바깥에 대한 사유와 상상을 자극하고 촉발하는 김재영의 문제의식은 갈수록 민족과 국가의 경계가 해체의 징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최근의 상황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보인다.

주제어: 근대 국민국가,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 디아스포라, 차별과 배제, 정체성의 혼돈과 분열, 경계인, 인종적·민족적 위계

【Abstracts】

Diaspora Representation of Kim Jae-yeong's Novels

Kong Jong-goo

The purpose of this treatise is to investigate and search Gim Jae-yeong's critical mind to the nation and race through analysis and discussions to the diaspora representation which appeared in her novels. For this purpose, this treatise categorized her novels as the two types. One is the 'Korea's diaspora work group' which dealt with loss or sadness of diaspora by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of Korean society. There's another one, 'Korean diaspora work group' which dealt with feelings of loss and grief of Korean diaspora by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of foreign country.

In the Korea's diaspora work group such as 'elephant', Korea's diasporas are represented victim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of Korea society. In the 'Korean diaspora of series of novels' such as 'Crab fishing in the Long Island', Korean diasporas are featured object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of foreign country in exactly the opposite direction.

Two series of novels formed geometric symmetry in the epic appearance each other. But they owned critical mind to disband the boundaries of modern nation-states. Gim Jae-yeong's critical mind has the significant

weight in the contemporary situation which ethnic and national boundaries increasingly showed a sign of the dissolution.

Key words: modern nation-state, nationalism and post-nationalism, diaspora,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dentity confusion and division, marginal man, racial ·national hierarchy

이 논문은 2015년 7월 6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7월 2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8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